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4월 7일

ISSN 1976-0507 Vol. 4 No. 13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의 의의 및 대응방향

박 미 숙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2-3460-1105)



KIEP 1990-2010

▣ 한국과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2009년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1~5일 보고타에서 2차 협상 개최

- 1차 협상에서 협상 진행의 세부사항을 담은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을 협의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협상을 개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 한·콜롬비아 FTA는 △ 자원 협력 △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큼.

- 콜롬비아는 석유, 석탄을 비롯하여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 중 최상위 외국인투자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다수의 FTA 체결 등을 고려할 경우 안정적인 주요 소비시장임.

- 한국산 자동차는 콜롬비아 수입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 중인데,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자동차와 부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협상 과정에서 △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에 준하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철폐 또는 인하 △ 농산물 개방 △ 투자자보호 등의 이슈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콜롬비아·미국 및 콜롬비아·EU FTA의 주요 쟁점이었던 농산물시장 개방과 자원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등의 이슈를 참고하여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한·콜롬비아 FTA 협상과 콜롬비아 경제의 특징

가. 한·콜롬비아 FTA 협상 진행 현황

- 2008년 11월 페루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에 합의함.
 - 이후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FTA 협상을 개시기로 결정함.
- 2009년 12월 7~9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차 협상이 2010년 3월 1~5일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개최됨.
 - 1차 협상에서는 협상 진행의 세부사항을 담은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협의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향후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 양국은 4월 16일까지 상품양허안 초안을 교환하고, 6월 중순경 서울에서 3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나. 콜롬비아 경제의 특징

- 콜롬비아는 인구 4,800만, GDP 2,350억 달러로 중남미 5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2003~07년)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3/4분기 성장률이 -1.0%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2/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07년의 고성장(7.5%)은 우리베(Alvaro Uribe) 정부 집권 이후 치안상태의 개선, 건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운용, 자유무역과 투자유치 정책에 기반한 소비 및 투자 증가, 석유 수출 증가 등에 기초함.
- 산업구조는 GDP 대비 서비스산업 66%, 농업 9%, 광업 7%, 제조업 18%로 구성되어 있고, 교역구조는 1차 상품 중심의 수출과 자본재·중간재·내구소비재 위주의 수입이 특징임.

- 2009년에는 전통적 수출 상품인 석유(31.2%), 석탄 및 광물 (18.7%), 커피(4.7%)가 전체 수출의 54.6%를 차지함.
- 최근에는 섬유, 제지, 가죽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가로 중남미 다른 국가에 비해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낮아짐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 산업의 취약성이 개선되고 있음.
- 자본재 및 내구성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데, 2009년 전체 수입에서 기계 및 전자제품이 25.5%, 운송장비가 17.4%를 차지함.
- 총수출의 60%가 미국,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4개국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실시함.
- '자유무역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달성' 이 현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인 가운데, 콜롬비아는 이미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음.

표 1. 콜롬비아의 FTA 체결 현황

국가 및 지역	상태
안데안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발효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G-2(멕시코, 베네수엘라)	
중미 3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캐나다	서명
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미국	
유럽연합	서명 예정
한국	협상 중

자료: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Ministr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 중남미 자원부국들은 자원산업에 대한 통제가 강하여 외국인투자(FDI)를 제한하고 있으나, 콜롬비아는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FDI의 50% 이상을 자원 분야에 유치함.
- 콜롬비아는 2010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인 37위를 기록함.¹⁾
- 주요 교역 및 투자 상대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며, 2010년 말까지 기존 체결 국가를 포함해 46개국과 FTA를 체결할 예정임.

1) 한국은 동 지수에서 19위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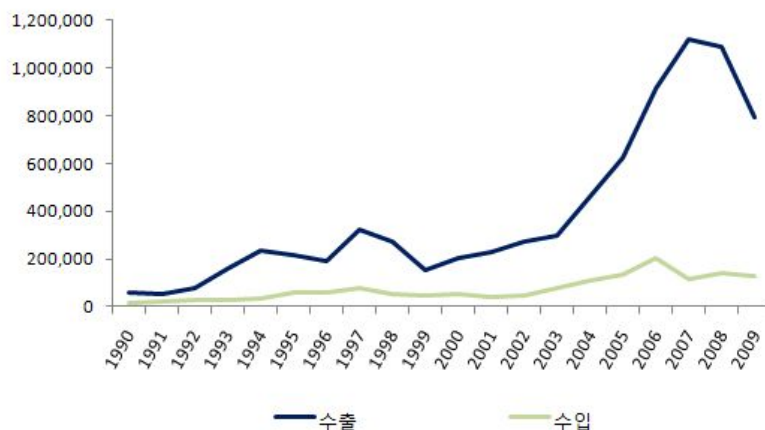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경쟁력 분석

가. 한·콜롬비아 무역 및 투자 관계

- 한국의 대콜롬비아 교역은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 5위의 수출시장임.
- 2009년 기준으로 대콜롬비아 수출은 7억 9,700만 달러, 수입은 1억 2,491만 달러로 6억 7,209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함.
-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콜롬비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급증(2003~07년 사이 수출액 10배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1. 한국의 대콜롬비아 무역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국의 교역은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의 형태를 보이며, 한국의 수출은 자동차, 기계 등의 공산품과 수입은 커피, 광물자원 등 1차 상품 중심임.
-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56.3%), 기계류(15%), 플라스틱(7%)이 전체 수출의 79%를 차지하며, 같은 기간 수입은 커피(42.3%), 철 및 강(21.4%), 광물(19.1%)이 전체의 82.8%를 점함.
- 특히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10%(2008년 기준)로 GM, 르노에 이어 3위를 기록함.

표 2. 대콜롬비아 주요 수출입 상품(HS 2단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도로주행 차량	449,045	56.3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	52,795	42.3
2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55,529	7.0	철 및 강	26,744	21.4
3	원동기기 및 설비	40,437	5.1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23,879	19.1
4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29,028	3.6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8,883	7.1
5	특수산업용 기계	22,251	2.8	의약품 및 약제품	2,303	1.8
6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22,216	2.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1,337	1.1
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	21,574	2.7	달리 명시되지 않은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1,327	1.1
8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19,082	2.4	채소 및 과일	890	0.7
9	철 및 강	17,216	2.2	의류제품 및 의류부속품	869	0.7
10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16,840	2.1	설탕, 설탕조제품 및 벌꿀	76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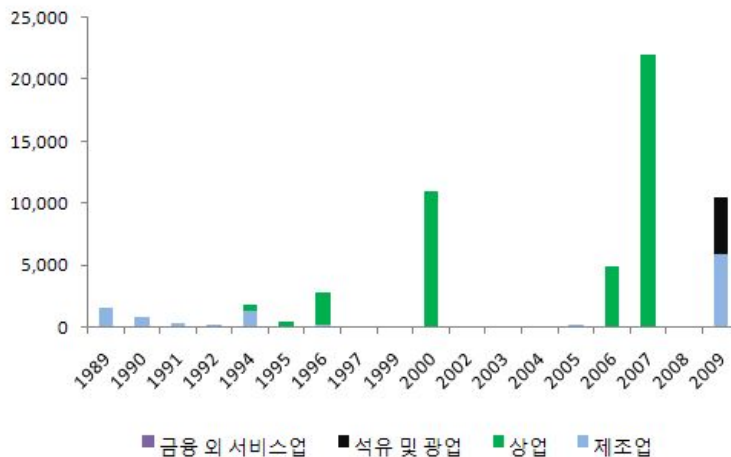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콜롬비아 해외직접투자는 전통적으로 판매법인과 지사 설립 등 판매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광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짐.

- 콜롬비아는 석유(32%)와 광업(18%) 부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으나, 한국은 2009년에 들어와서야 해당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음.

그림 2. 한국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산업별 경쟁력 분석

■ 양국간 교역구조는 상호보완적임.

- 주요 수출 품목에서 콜롬비아는 커피, 바나나, 석유, 광물, 의류, 조립 자동차 등 주로 1차 산품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자동차, 휴대전화, 석유화학제품, 선박, 전자제품, 기계 등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상품에 주력하여 상호보완적인 수출구조를 시현함.

■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결과, 한국은 대세계무역에서 선박,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기기 및 부품, 섬유 및 의류 등에, 콜롬비아는 농축산물, 석탄, 철강제품, 광물, 유리, 미용용품, 제지, 섬유 및 의류 등에 비교우위를 나타냄.

- 특히 커피, 바나나, 식물성 기름, 화훼, 설탕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이며, 석탄 수출량은 세계 5위 규모임.

■ 상대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MCA)를 분석한 결과, 각국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상을 보임.

- 그러나 바나나, 석탄, 석유 등은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임에도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세계시장보다 콜롬비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보임.

표 3. 양국의 수출 구조

(단위: %)

품목	콜롬비아	한국
농축산물	19	1
광물	42	8
화학제품	5	6
플라스틱, 고무	5	6
가죽제품	1	0
원목 및 원목제품	3	1
섬유 및 의류	6	4
원석 및 유리	5	1
금속	8	9
기계 및 전자제품	3	37
운송장비	3	21
기타	1	7
계	100	100

자료: UN, COMTRADE 2010.

표 4. 양국의 비교우위산업

구분	한국	콜롬비아
대세계무역 비교우위 (RCA)1)	선박제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기기 및 부품 섬유 및 의류	농축산물 석탄, 광물, 유리 석유, 철강제품 섬유 및 의류 미용용품, 제지
상대시장에서 비교우위 (MCA)1)	전자기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철강제품 섬유사 섬유 및 의류	농산물 광물 철강제품 섬유 및 의류

3. 한·콜롬비아 FTA의 의의 및 대응 방향

가. 한·콜롬비아 FTA의 의의

- 한·콜롬비아 FTA는 △ 자원 협력 △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큼.

1) 자원 협력

- 석유, 석탄, 기타 광물 등 콜롬비아가 가진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 현재 콜롬비아가 FTA 기체결국에 제공한 법인세 감면, 투자 및 입찰 참여 시 혜택 등이 한국에게도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 전 국토의 80%가 석유 미탐사 지역으로 향후 개발 잠재력과 주요 산유국으로의 부상 가능성이 높음.

- 게릴라 준동에 따른 치안 불안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탐사가 이루어져 현재 확인 매장량이 14억 배럴²⁾에 불과하나, 2008년 국립 보고타 대학은 매장량을 560억 배럴로 추정함.

- 주요 생산 원유는 경질원유(API 28~36도 사이)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주요 남미산 원유에 비해 품질 경쟁력이 있음.

- 석유산업에 대한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인 정책 실시로 인해 투자환경 우수

- 정부는 주요 유전의 노후화와 신규 유전 개발 지연으로 인한 원유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광구 개발에 외국계 회사의 투자를 적극 유치 중임.

- 콜롬비아는 △ 외국계 투자 기업의 유전 운영권 및 100% 지분 소유 인정 △ 8~25% 이내에서 일산량에 따른 로열티율 적용(a sliding-scale royalty rate) △ 중질유에 대한 로열티 할인 △ 광구 입찰 시 국영 에코페트롤사와 외국계 회사의 동등한 대우 등의 정책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우호적인 투자환경 국가로 인정받음.

2) 현재 콜롬비아의 확인 매장량은 14억 배럴로 중남미 6위이나, 보고타 대학이 추정한 560억 배럴은 콜롬비아를 중남미 2위, 세계 8위의 산유국으로 부상케 하는 매장량임.

- Fraser Institute는 2009년 보고서에서 중남미 주요 석유 매장 국가 중 콜롬비아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가장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것으로 분석함.

표 5. 중남미 국가의 석유 매장량·생산량 및 투자 환경

국가	확인 매장량 (십억 배럴)	생산량 (1000배럴/일)	투자 환경 (1: 최상, 5: 최하)
베네수엘라	99.4	2,566	5
브라질	12.6	1,899	3
멕시코	11.9	3,157	-
에콰도르	3.8	514	5
아르헨티나	2.6	682	4
콜롬비아	1.4	618	2
페루	1.1	120	3
트리니다드 토바고	0.8	149	2
기타 중남미 국가	1.4	138	-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9*.
Fraser Institute, *Global Petroleum Survey 2009*.

- 천연가스 매장량은 1천백억 입방미터(중남미 8위), 석탄은 68억 톤(중남미 2위)이며, 동, 니켈 등도 주요 광물임.
- Fraser Institute의 광물 투자환경 평가에 의하면 중남미 국가 대부분의 투자환경이 최근 악화된 가운데 콜롬비아만이 유일하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주로 정치적 안정 및 치안 향상에 기인함.

2)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한 소비시장 접근 용이

- 중남미 3위의 소비인구 보유와, 거대 중남미시장 접근 용이
 - 콜롬비아는 중남미 총 13개국³⁾과 FTA를 발효하여 인구 5억 이상의 거대한 잠재력을 갖춘 중남미 소비시장에의 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함.
- 중남미 국가 중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며, 1980년대 중남미 전체의 외채 위기에서도 모라토리엄이나 초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음.
 -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이 1980~90년대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으나 콜롬비아는 칠레 다음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함.

3)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임.

- 지난 20년간 콜롬비아의 성장률은 연 3.6%로 중남미 평균인 3.0%를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변국의 평균 성장률이 2009년 -2.5%를 기록한 중에서도 0.1% 감소에 그침.
- 건전한 재정정책의 운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었음.

표 6. 중남미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단위: %)

국가	1981~85년	1986~90년	1991~95년	1996~2000년	2001~05년
멕시코	62.4	75.8	18.0	19.4	4.9
베네수엘라	11.0	38.9	44.9	45.1	20.8
볼리비아	2,692.4	67.8	12.0	6.3	3.1
브라질	151.1	1,076.6	1,090.9	7.6	8.7
아르헨티나	382.4	1,191.6	42.9	-0.1	10.5
에콰도르	28.1	47.0	39.7	47.9	12.6
우루과이	46.0	79.0	62.3	13.9	10.3
칠레	21.2	19.6	13.9	5.2	2.6
페루	104.9	2,342.2	113.3	6.9	1.9
콜롬비아	22.4	25.1	24.7	15.6	6.5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9.

3) 자동차 및 부품 시장 경쟁력 강화

■ FTA 체결로 현행 35%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증대할 전망이다.

-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체(CAN)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하나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용 차량은 35%, 상업용 차량은 15%, 부품은 5~15%의 고관세를 부과함.
- 콜롬비아 자동차시장은 외국 브랜드의 콜롬비아 내 조립차와 수입차가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판매량에서 시장점유율 3위임.
- 수입차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판매 1위를 기록 중인데, 특히 상업용 자동차시장의 수요가 증가하여 택시용 차량의 약 71%를 한국산이 점유함.

■ 현재 한국산 부품에 5~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FTA는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및 대만산 부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임.

- 콜롬비아 수입자동차 부품시장에서 한국산의 비율은 2007년 10.5%, 2008년 11.4%, 2009년 상반기 13.6%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7. 국내 차량 판매대수⁴⁾

(단위: 대, %)

브랜드	판매 대수	시장점유율
시보레	37,881	35.1
르노	14,227	13.2
현대	11,009	10.2
마쓰다	6,171	5.7
기아	5,402	5.0

자료: 콜롬비아 Motor지(2009).

표 8. 택시용 차량 판매대수

(단위: 대, %)

브랜드	판매 대수	시장점유율
현대	5,102	60.1
시보레	2,241	26.4
기아	960	11.3
르노	142	1.7
체리	34	0.4

자료: 콜롬비아 Motor지(2009).

나.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 한국산 자동차 수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에 준하는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체결된 미국과의 FTA에서 미국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53%(품목기준)는 발효 즉시 관세 철폐, 23%는 5년 이내, 24%는 10년 이내 철폐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 완성차의 경우 트랙터, 트롤리 버스, 3,000cc 이상의 4륜구동 차량 등의 대형 엔진 차량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10년 내에 점진적으로 철폐됨.

-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인 농산물의 국내 시장 접근을 위해 강한 관세 철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의 영향을 고려한 관세 철폐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콜롬비아·EU FTA⁵⁾ 협상에서는 EU의 농업보조금 지급과 관세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EU는 콜롬비아의 주력 수출품인 바나나, 설탕, 림, 야자 기름, 사탕, 초콜릿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합의

- 한·ASEAN FTA에서 바나나는 양허관세 예외품목이며, 한국은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에 대해 관세를 현행 50%에서 2016년 1월 1일까지 40%로 인하하고, 림은 현행 20%에서 2016년 1월 1일까지 5%로 인하함.

– 미국과 콜롬비아 FTA의 경우, 각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며 매년

4) 시보레, 르노, 마쓰다는 현지 조립차이며 현대와 기아는 수입차임.

5) 콜롬비아·EU FTA는 2007년 5월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EU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지적재산권, 생물 다양성 보호, EU의 바나나 관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가 협상을 중단함. EU 집행위는 콜롬비아 및 페루와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재개하였으며, 2010년 3월 1일 협상이 최종 타결됨.

쿼터량을 증가시키기로 합의함.

- 콜롬비아는 닭고기, 옥수수, 쌀에 대해 각각 18년, 12년, 19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설탕의 무관세 쿼터량을 첫째 5만 톤으로 정한 후 매년 750톤씩 늘리기로 합의함.

■ 대콜롬비아 투자 진출의 활성화 및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콜롬비아 FTA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양자 협의나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또는 기타 중재 기구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함.
- 콜롬비아의 국유화 시도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콜롬비아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국유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에 유의함.
- 콜롬비아·미국 FTA는 직접 또는 간접 국유화가 발생할 경우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보상해야 함을 명시 **KIEP**